

안동 삼베 수공업산지의 생산유통체계와 지역분화

이 철 우*

본 연구는 안동지역 삼베수공업산지의 준립기반 즉 생산유통체계의 변화 및 경영특성, 그리고 산지내 사회적 분업과 지역 분화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안동 삼베수공업은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의 극심한 쇠퇴기를 거쳐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유통체계는 종래 일괄생산체계의 「소상품형」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품질 및 생산공정 개선노력과 생산연령층의 노령화 그리고 기존 제품판매체계의 기능약화로 생산공정상의 사회적 분업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체계가 변화하였다. 산지내 사회적 분업은 대마 재배와 제사 및 직조 공정간, 나아가서 부분적인 수공업적 공정상의 분업 그리고 생산과 제품 판매간의 크게 3부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생산과 제품의 유통·판매간의 분업은 활성화되지 못해 신제품의 기획·개발 및 판로개척을 선도할 수 있는 업체가 정착·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분화의 특징으로는 과거 전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생산이 특정 지역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간 생산유통체계상의 차별성에 기초하여 지역간 연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역분화의 원인으로서는 대마재배의 지역 특화와 노동력 이용방식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들 수 있다.

主要語 : 재래공업, 안동포, 생산유통체계, 사회적 분업, 지역분화

1. 서 론

1) 연구목적과 방법

오늘날 세계경제는 UR협상과 WTO체제에 의해 점차 통합되어 가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도 고유의 전통기술의 산업화를 통해 세계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의 우수한 전통기술 및 고유상품은 대략 80여 종에 이르며 그중 전통발효식품, 안동포와 한산모시 등의 고유섬유 및 개량한복, 천연염색 등의 14개 분야는 산업화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미 김치를 비롯한

전통 발효식품의 산업화는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전통기술은 문화보존차원에서 기능보유자 지정 등을 통한 기능전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일상생활 소비재로서의 산업화는 너무나도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그동안 농림부, 과학기술처 등을 중심으로 전통기술의 보존·개발정책이 시행되어 왔으나 분야별, 부처별로 연계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고유의 전통기술 및 상품은 원료확보, 산업화를 위한 생산기술 및 기계·설비 그리고 시장개척의 수준과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부문 및 품목별로 차별화를 전제로 한 종합적인 개발·지원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존속되고 있는 전통기술이나 상품의 모태가 되어온 재래공업에 대한 철저한 연구가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조교수

선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이들 전통기술이나 고유상품 생산의 모태가 되어온 재래공업은 역사적으로 보면 봉건사회에 있어서 상업자본의 지배하에서 주로 수공업에 기초한 가내공업의 형태로 발달되어 왔다. 그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생산유통구조의 변화를 거듭하면서도 소규모기업이 집적하여 산지를 형성하면서 현재까지 존립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合田昭二, 1971, 498). 재래공업산지도 하나의 산업지구(industrial district)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즉, 재래공업산지는 마샬리안 산업지구(Marshallian industrial district)가 가진 보편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간의 상호의존성, 기업간 협력을 고취시키는 규범과 사회문화적 요소의 공유, 산지고유의 노하우와 혁신과 정보의 공유, 그리고 산지내 확장된 노동분업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제도와 사업서비스의 공존 등의 특징을 가진다(Amin, 1994; Lorenz, 1992, 195~204).

더욱이 재래공업은 소비재 생산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넓은 지역에 걸쳐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원자재가 산지 외부에서 조달되고 있다(上野和彦·西村龍平, 1990, 141). 따라서 영세소규모의 생산자가 원료구입, 생산과 제품판매를 동시에 수행하는 많은 제약 을 받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세업자들은 집적하여 협동적인 연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서로 대립하면서도 기능적으로 통합된 양상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지는 단일 생산유통체계에 의해 통합되어 있다기 보다는 다수의 유형이 혼재되어 있고, 지역적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독자적인 경영자원의 축적을 기반으로 발달한 결과, 산지의 발전과 존립형태가 매우 다양하다(李靑雨, 1991, 138). 뿐만 아니라 우연적이고 특수적인 요인에 의해 성장·존립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Perry and Goldfinch, 1996, 222). 따라서 재래공업연구의 의의는 역사적, 지역적인 존재형태의 이질성 그 자체에 있으므로, 재래공업에 대한 중심적 연구과제는 그 존재형태의 특성과 경제적 요인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제요소의 총

합인 산지존립의 社會機構의 발전양상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하겠다(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270).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래공업 산지의 존립기반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¹⁾으로 안동지역의 삼베(安東布) 수공업산지의 존립기반 즉 생산유통체계 및 경영특성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이용된 주된 자료는 1996년 6월 14~16일에 걸쳐 안동시 서후면 저전리와 임하면 고곡리, 금소리 그리고 강남동을 중심으로 한 안동포 생산가구와 배전골목을 중심으로 한 유통업체 그리고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 의한 면접조사의 결과이다.

2) 대마의 특성과 안동지역의 대마 생육조건

대마(학명 : Cannabis Sativa L.)는 桑科(Moraceae)에 속하는 1년생 초본이며 온대에서는 3m 내외, 열대에서는 6m 정도까지 자란다. 대마는 중앙아시아가 원산지이며, BC 1500년에 유럽에서 전래되었으며 품종은 크게 유럽종 혹은 스밀나종(smyrna)과 아시아종으로 구분된다. 대마의 재배범위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인도에서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세계 도처에서 재배되며, 세계의 주요 생산국은 구소련, 인도, 중국, 루마니아 등이고 총생산량은 점차 감소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품종은 주로 수입종으로서의 일본종인 도찌기(枋木)종과 이태리종인 에이리터(Elitta) 등이다.

대마는 기후에 대한 적응능력이 강한 작물이지만 섬유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조건은 기온, 강수량, 바람 등이다. 대마의 생육기간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야 한다. 이러한 기온조건이 줄기의 성숙을 촉진시키고, 섬유를 충실하게 하며, 강인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숙기에는 고온·건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섬유질이 거칠고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수확기 7월에는 대마를 건조시켜야 하므로 맑고 건조한 기후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마는 키가 크게 자라고 줄기가 유연하고 부러지기 쉽기 때문에 바람은 강하지 않아야 한다. 대마는 심근작물이므로 砂質壤土가 가

장 적합하다. 사질양토에서 생산되는 섬유는 빛깔이 양호하고 질이 좋은 반면 重質粘土는 배수가 불량하여 대마 생육이 늦어지고, 腐植質土는 섬유의 빛깔과 질이 나빠며 불순물의 함유량도 많다. 이와 같이 토질은 대마의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알맞은 땅이 아니면 양질의 섬유를 생산할 수 없다(김의정, 1980, 3~8). 한편 안동군의 자연환경은, 지형적으로는 화강암 개석분지를 이루어 주위가 산지를 되어 있고, 중앙은 저산성 구릉지를 형성되어 있다. 낙동강의 본류가 반변천 등의 지류를 합류하여 시의 중앙부를 관류하면서 주위에 충적평야를 발달시키고 있다. 지질 및 토양에 있어서는 대략 반변천을 경계로 북부지역은 화강암지대로 사질토양이며, 남부지역은 혈암의 신라통 지역으로 점토질이 풍부한 토양이다. 연평균 기온은 12℃ 내외, 1월과 8월 평균기온은 각각 -2.3℃와 25.1℃이며 연강수량은 900mm 내외로 소유지역에 속한다.

이상의 대마생육조건과 안동지역의 자연환경을 비추어 볼 때 수확기에 강수 일수가 약간 많은 조건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양호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 대마재배의 중심지역인 임하면은 면의 중앙부를 반변천의 지류인 길안천을 합류, 곡류하면서 동서로 관류하고 있다. 이들 하천유역에 배수가 양호하고 사질양토의 충적평야가 발달하고 이 충적평야의 남북이 산지로 막혀 강한 계절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토양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안동지역에서는 최적의 대마재배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안동포생산의 발달과정

1) 우리나라 삼베수공업의 발달과정

삼베는 『삼국지 위지동이전』과 『삼국유사』에 瀟와 弁·辰에서 생산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옛부터 모시, 명주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중요한 옷감으로 자리잡아 왔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권, 320). AD 40년경 양잠 및 견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었으나 견직물의 생산량은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고가품이어서 서민은 물론 궁중복, 군복 등

대부분의 의복도 마섬유 제품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그 후 1296년 최초로 면직물이 국내에 소개되고 1363년 문익점이 목화를 전래한 이후에도 서민의복의 주류는 전국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마직물이었을 것이다(한국섬유기술진흥원, 1995). 한편 조선시대까지의 봉건사회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수공업은 자급자족 중심의 가내 공업형태로 貢納制度和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전개되어 왔으나 어디까지나 농경생활을 보조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이철우, 1990, 24). 이와 같은 상태의 농민 수공업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 것은 삼베를 비롯한 섬유직조 수공업이었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행해지던 삼베 생산은 조선 태종의 마직물 길쌈 장려책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14세기 말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면직업의 발달로 면화재배가 어려운 북부지방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²⁾ 이와 같은 섬유직조수공업의 업종별 지역적 분업으로 남북간의 수명과 삼베와의 거래가 활발해졌고 이에 따른 상품생산도 촉진되었다. 또 봉건지배층의 여름철 옷감으로 모시뿐만 아니라 고급 삼베에 대한 수요증가도 삼베직조기술의 발전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20세할세마포」과 「19세사마교직포」 등의 고급삼베와 명주실과 섞어 짠 교직품들이 생산될 정도로 직조기술이 발달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 수공업이 현저하게 발전하게 되는 18세기 이후에는 두만강 연안의 6진 지역이 새로운 삼베 명산지로 부상하였고, 특히 회령, 종성에서 생산된 삼베는 서울의 양반과 부유층의 하복지로 많이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明과 淸나라에 대한 세공품목에 들 정도로 그 품질이 우수하였다(홍희유, 1979, 218~222). 그러나 조선후기 삼베의 주산지였던 북부지방에서도 면화재배가 성공·확산됨으로서 대마재배 및 삼베생산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조승현, 1992, 163). 일제식민지화 이후의 삼베수공업은 3·1운동이전의 식민지 지배의 초기(1911~1918년)에는 생산량과 생산액이 각각 2.5배와 4.2배 늘어났다.³⁾ 지역별 분포에 있어서는 1911년에는 전체 생산량의 16.9%를 차지한 경남의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함북, 함남, 강원, 전남, 경북의 순이었으나 1918년에는

안동 삼베 수공업산지의 생산유통체계와 지역분화

경남, 함남, 경북, 강원 순으로 함북의 비중은 크게 낮아진 반면 강원도는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삼베생산의 증가는 식민지 정부의 농가 부업장려책의 일환으로 전국에 「機業傳習所」⁴⁾와 주요산지에 조합을 설립하여 기술지도와 함께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균등한 품질이나 규격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조승현, 1992, 167).

그러나 1920년대 이후 제1차 세계대전후의 침체된 일본경제의 돌파구를 우리나라에서 찾기 위하여 종래의 관세제도 및 회사설립 허가제를 폐지하여 일본상품과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식민지 정책과 타율적인 식민지 종속형의 산업구조 개편과 의생활의 변화로 일본 및 서구의 근대적인 공장제 섬유제품의 대대적인 유입과 그리고 의생활의 변화로 우리나라 수공업의 전반적인 쇠퇴속에 삼베 수공업도 쇠퇴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 산업근대화 이후에는 대체제인 화학섬유의 대량생산과 생산양식의 변화 등으로 그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소득수준 향상과 천연섬유에 대한 선호도의 증대와 천연섬유로서의 장점과 장래용품 등 그 용도의 다양함으로 삼베 수공업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삼베 수공업 산지로는 경북 안동과 전남의 화순·보성을 들 수 있다(조승현, 1992, 160).

2) 안동 삼베 수공업의 발전과정

안동지역에 있어서의 대마재배와 삼베 수공업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다른 농촌 수공업산지와 마찬가지로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라 유리왕 때부터 육부의 여성들이 두패로 나뉘어 울력 보름부터 길쌈을 하여 추석에 우열을 가리는 경기가 열렸으며 선덕여왕 때 안동포가 뽕혀 진상품으로 바쳐질 만큼 품질이 우수하였다"(김의정, 1980, 24)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삼국시대부터 안동포의 직조기술은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안동시청 잡업특작계 보관자료에 의하면 안동포는 조선 중엽부터 여름철 옷감으로 궁중 진상품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對中國 主要 交易商品중의 하나였다. 이후 16세기 우리나라 직

조수공업의 발달과 더불어 직조수공업 특화지역이 형성될 당시에는 안동은 의성, 예안과 더불어 대표적인 무명산지의 하나였다. 즉 안동은 삼베뿐만 아니라 면직물에 이르기까지 섬유직조기술 축적은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제시대에는 수탈품목에 안동포가 포함되었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업장려책의 일환으로 전국 주요 삼베 생산지역에 機業傳習所를 세워 기술지도를 할 당시에도 그 설립 대상지역에서 안동은 제외되었으나 「안동마포조합」을 설립·운영하면서 안동포의 개량화와 산업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안동지역에는 상당한 기술축적이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조합을 설립할 정도의 생산량이 많았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삼베수공업의 핵심의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해방과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통해 외국산 직포수입의 감소와 대부분의 국내 섬유공업시설의 폐해에 따른 부득이한 삼베수요의 증가에 따라 1960년에는 5,185 농가가 281ha에 대마를 재배하여 17,874필의 안동포를 생산하였다. 그후 1960년대 접어들면서도 정부의 농가부업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양잠이나 삼베생산과 같은 직물수공업이 주력업종으로 지정되었고 정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일본의 다도용 방식으로 수출되기도 하였으나 실용성부족으로 중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안동군청 직영 가내공업센타에서 전통베틀보다 2~3배 능률이 높은 개량직기로 5세정도 거친 삼베생산 및 근대적인 염색제도, 그리고 안동마포조합결성 등 다방면에 걸친 안동포 활성화방안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여 1976년 대마재배 면적은 3.4ha, 재배농가는 110호 그리고 560필에 지나지 않아 1960년에서 1976년까지의 연평균 감소율은 각 27.6%, 10.5%, 그리고 9.4%이다. 이와같은 1970년대 초반의 대마 및 안동포 생산을 둘러싼 환경변화 즉 급격한 감소원인은, 첫째 화학섬유의 대량생산에 따른 여름 옷감, 상보, 침구용 삼베에 대한 대체품의 등장, 둘째 대마관리법의 제정·공포로 대마재배허가를 받게 함과 동시에 대마잎의 처리 등에 있어서의 까다로움과 번거로움으로 대마생산에 제약을 받게 되었다는 점,⁵⁾ 셋째 가정의 레준칙에 따른 관혼상제의 간소화에 따른 수의 및

상복용 삼배수요의 감소, 넷째 도시화·공업화에 의한 농촌노동력의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불황에 대한 타책적으로 1980 년대에 들면서 안동포의 개량화와 혼방화, 직기개발 및 공정개선 작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⁶⁾ 자금력, 기술력, 정보력 부족으로 실패 또는 중단 되는 등 수요감소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침체상태 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이후 안동포 생산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성향의 고급화·다양화에 힘입은 삼배수요 증가로 1970 년대 초반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일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지역의 삼배생산은 경제성을 잃은 반면 안동포는 그 동안 의 지명도와 품질의 우수성을 가진 희귀 전통직물

로서 고가품의 의류수요가 점차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1년에서 1994년까지 값싼 중국산 삼배의 수입으로 일시 감소하였으나 중국산 삼배가 품질이나 수명에 많은 문제가 있어 안동포 와는 비가격경쟁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한 결과⁷⁾ 1995년 이후에는 안동포 생산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그림 1).

1995년 말 현재, 안동지역에서는 96세대가 20.7ha에 대마를 재배하여 총 21.9M/T의 대마 를 생산하며, 안동포의 연간생산량은 6,300필에 달한다. 대마재배의 지역별 분포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1995년에는 안동시내 5개면에서만 대마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중에서 임하면이 1,903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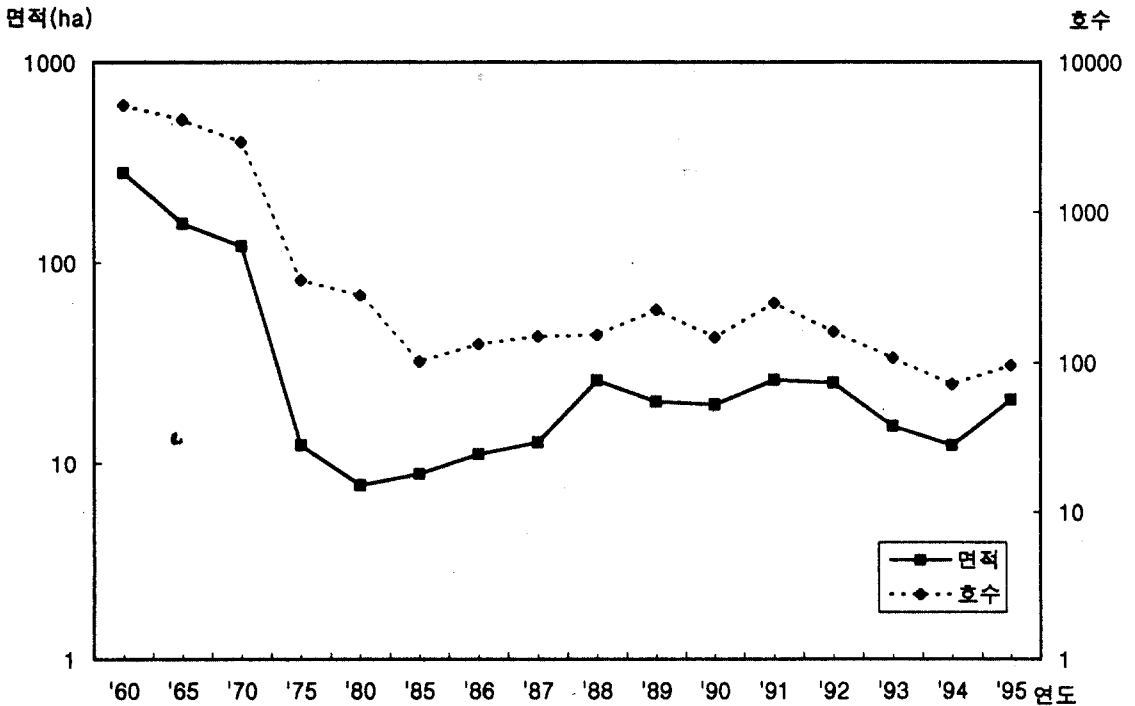


그림 1. 대마 재배면적 및 재배농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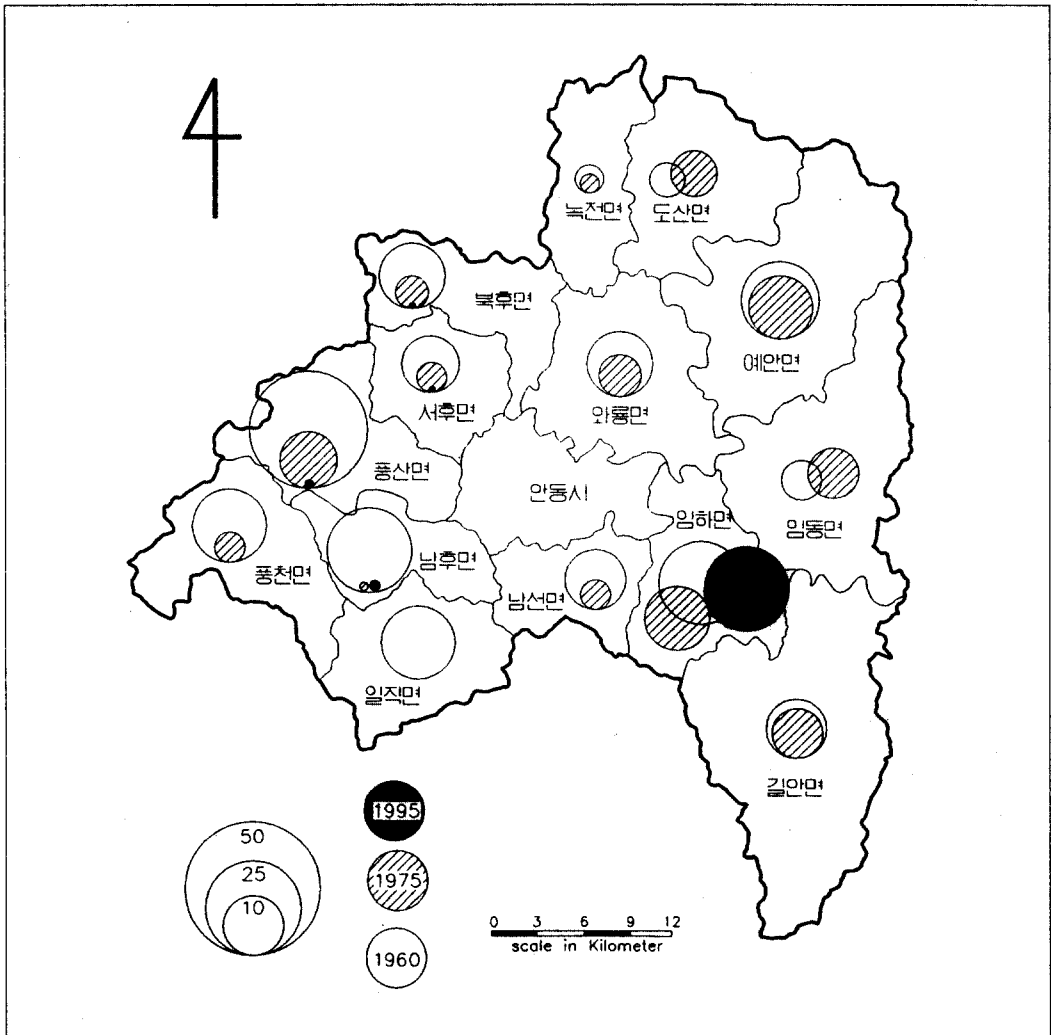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 대마 재배면적 추이

로 전체 대마재배면적의 93.2%를 차지하며 나머지 4개 면의 재배면적은 0.1~0.3ha에 지나지 않아 대마재배는 안동지역내에서도 극단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통합전 안동군 전면에 걸쳐 비슷한 수준으로 재배되어 왔다.⁸⁾ 농촌 가내 수공업은 원래 원료에서 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이 동일 가구내에서 이루어지는 일괄 생산체제로 이루어지는 일반적 경향(홍희유, 1979, 220)에 비추어 볼 때

과거에는 안동포 직조도 안동지역 전역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1970년대 삼배에 대한 급격한 수요감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대마생산량과 재배농가의 급격한 감소함과 더불어 감소율에 있어서의 지역적 차별성이 나타나게 되었으나 현재와 같은 특화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오늘날과 같은 특화는 1980년대 이후 고급품 중심의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마 재배에서 직조까지의 일괄생산체제가 아니고 직조

기술을 가진 사람이 대마를 직접 재배하지 않고 대마 재배조건이 양호한 지역으로부터 질 좋은 대마를 구입하여 수공업적 공정만을 담당하는 산지 내 지역간 사회적 분업형태로 전환된 결과에 기인한다.

3. 생산유통체계와 경영특성

1) 전통적인 안동포 생산과정

안동포의 생산공정은 크게 농업적 성격의 대마 재배단계와 수공업적 성격의 제사 전단계, 제사단계, 직조단계, 착색단계 등의 5단계로 나누어진다(표 1). 첫째 대마재배단계에서는, 우선 대마는 深根性 식물이므로 耕土의 整地가 요구된다. 整地는 11월 상순에서 다음 해 1월에 걸쳐 깊이 15~30cm로 여러 번 갈아줌으로써 겨울 동안에 토양이 부드러워지고 땅속에서 越冬하는 해충, 병균 등을 없애도록 한다. 대마는 根毛가 가늘고 연약하므로 整地가 불충분하면 발육이 저해되고 생육이 고르지 않게 된다. 播種은 균질의 대마를 위하여 싹씨⁹⁾를 채로 까불어서 선별하여 4월 초순에 줄뿌림한다. 그리고 이때 알맞는 재식 거리(이랑 나비 10~15cm, 포기사이 3cm)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질의 대마를 원하는 경우는 이랑 넓이를 좁게 하고, 많은 양의 수확을 원할 경우에는 이랑 넓이를 넓게 한다. 그 이유는 이랑 넓이가 좁으면 麻莖이 가늘고, 생산 섬유의 품질이 優良하지만 줄기는 짧아 수량은 많지 않은 반면, 이랑이 넓으면 麻莖의 생육이 좋고 수확량은 많아지나 질이 나쁘다. 수확은 대마 줄기 하단부에 있는 잎이 떨어지고, 줄기는 약간 황색을 띠는 7월 초순에 한다. 수확기는 섬유의 수량 및 품질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야 하며, 수일간 맑은 날씨가 계속됨이 예상될 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이때 대마의 수확이 빠르면 품질은 좋게 되지만 수량이 감소되고 또 늦으면 수량은 많으나 품질은 떨어진다. 그리고, 종자를 얻고자 한다면 종자가 완전히 성숙한 10월 하순~11월 상순에 수확한다. 둘째, 제사 전단계는 다시 6단계의 세부 공정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찌기(boiling)는 껍질을 벗기

기 위해 삼대를 삼찌는 가마에 넣고 거적으로 덮은 후 쪄 다음, 4시간 이상 김이 삼대에 끌고루 오르도록 불을 때서 쪄 후 단을 펼쳐 햇볕에 하루 정도 바싹 말린다.

다음은 이렇게 말려 묶어 둔 삼을 흐르는 물에 12시간 냇물에 담가 불린(retting)후에 삼껍질을 벗기는 작업(脫皮: casting-off)을 하고 나서는 벗긴 껍질을 꼭지로 만들어 다시 말리는 작업(乾燥: drying)을 마치면 피삼이 된다. 이 피삼을 물에 적셔 삼뜰날(마도)로 피삼에 붙어 있는 얇은 껍질을 판자쪽에 올려 한가닥씩 벗기는 과정이 정력(refining)공정으로 순섬유질(精麻: pure hemp)만 골라내는 과정으로 '훈기' 또는 '툭기'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 정마를 햇볕에 일주일 정도 바래는 표백(bleaching)과정을 거치고 나면 삼이 암갈색에서 붉은 빛을 띤 탐황색으로 변한다. 이상의 과정이 끝나면 製絲 준비과정이 완료된다. 다음은 세 번째 제사단계로 살삼(pure hemp)이라고 불리는 이 정마를 물에 축여 부녀자들이 손톱이나 이빨로 가늘게 찢어 실을 만드는 공정이 分絲(splitting)이다. 여기에서 가늘게 찢는 정도에 따라 '細'가 결정되며 이 공정은 連絲작업과 함께 전체 공정중에서 가장 고도의 숙련도와 많은 시간을 요하고 주로 이(齒)로 쪼개는 동안 많은 고통이 따른다. 과거 부녀자들은 쪼 때 땀은 뺀 옷을 씌어가면서 입의 아픔을 잊었다고 하는데 감이 없으면 땀을수록 인기가 있었다고 하니 가히 그 고통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렇게 가늘게 쪄 삼을의 끝과 끝을 연결시켜 긴 타래의 실을 잇는 連絲(linking-up string)를 한다. 이 작업에서 부녀자들이 속옷을 넓적다리 깊숙이 까지 걸어 올리고 손바닥에 침을 뱉어 삼의 머리와 끝을 한데 문질러 잇는다.

연사공정이 끝난 삼실을 이용하여 본격적으로 짜는 직조단계인데 이 단계에서는 먼저 직포를 위해 '세'의 수와 날실의 길이를 결정하여 실을 마름질 하는데 이 공정이 배날기(정경: warping)공정이다. 배를 날 때는 반드시 날상이¹⁰⁾를 이용한다. 그런 후 날실에 좁쌀과 된장으로 만든 '조당수'라는 풀을 매기는 배매기(호부: sizing)작업이 이어진다. 날실에 풀을 먹이는 것은 적당한 습도 유지와 바다나 잉어의 마찰에 의해 끊어지지 않고 보푸래

안동 삼베 수공업산지의 생산유통체계와 지역분화

표 1. 안동포의 전통적 생산과정

과 정	작 업 공 정	비 고
I. 대마재배단계	1. 정지 2. 파종 3. 수확	11월~1월 4월 초순 7월
II. 제사 전단계	1. 찌기(중숙: boiling) 2. 불림(침적: retting) 3. 피껍질벗기기(탈피: casting-off) 4. 피삼말리기(건조: drying) 5. 걸껍질풀어내기(정련: refining) 6. 표백(bleaching)	4~5시간 12시간 - 꼭지로 만들어 말림 "훑기" 또는 "툽기" 일주일 정도
III. 제사단계	1. 삼썬기(분사: spliting) 2. 삼삼기(연사: linking-up string)	고도의 숙련과 시간을 요함
IV. 직조단계	1. 배날기(정경: warping) 2. 배매기(호부: sizing) 3. 배짜기(제직: weaving)	날살이를 이용하여 세수를 정함 "조당수" 사용 -
V. 착색단계	세척과 색내기(washing & colouring)	가성소오다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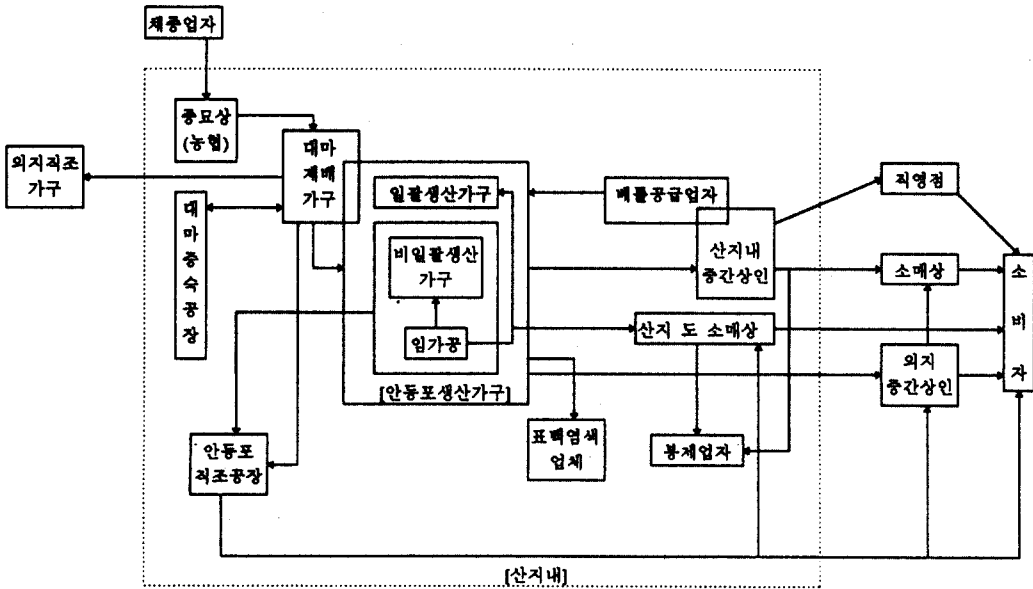


그림 3. 안동포의 생산유통체계(1996년 현재)

기(날살 표면에 생기는 잔털)가 일어 실의 질이 상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배짜기(製織: weaving)공정이 이어진다. 이때 씨실은 물에 충분히 축인 다음 북(shuttle)에 넣어 사용한다.

날살도 건조하면 끊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적당한 습기를 유지해 주어야 하고 끊어진 날살을 이을때는 누에고치에서 나온 견면(누에고치 겉면에 붙어있는 솜)으로 매우 질기어 실과 실을 잇는

데 씬)을 이용하여 날과 날을 한손에 잡고 꼬는 듯이 이어준다. 제직과정에서 주의할 것은 포폭이 줄어들지 않도록 최할(쇠막대)로 폭의 양끝을 잡아주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공정을 거쳐 짜여진 삼베는 마지막으로 베를 뿔 때 먹인 풀과 된장을 빼내기 위해 물에 담구었다가 방망이로 두들겨 세척한 후 적당히 마르면 발로 밟아 마름질을 한다. 최종적으로 마름질이 끝난 삼베를 가성소다 용액에 담구어 두면 노란색으로 물들이는 색내기작업이 이어지는데 이것을 '상패'라고 한다.

2) 생산유통체계의 변화

농촌형 재래공업은 일반적으로 원료생산에서 최초 제품생산까지 전공정이 단일 경영체 내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괄생산체제가 중심을 이룬다. 안동 삼베생산도 1970년대 쇠퇴기를 거쳐 1980년대 회복기를 맞이하기 이전까지는 개별 농가에서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각자의 생산설비로 대마재배에서 직조·색내기까지 전공정을 담당하는 일괄 생산형태로 생산된 제품을 중간상인이나 정기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소상품형」체제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천연섬유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고급품을 중심으로 한 삼베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공정 개선노력과 생산연령층의 노령화 그리고 기존제품 판매체계의 기능약화가 맞물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유통체계가 변화하였다.

첫째, 생산체계상의 변화로는 과거 일괄 생산체제에서 크게 농업적 성격이 강하고 힘든 육체노동을 필요로 하는 대마재배 및 증숙공정과 여성노동력 중심의 수공업적 성격이 강한 그의 공정간, 나아가서는 개량베들의 보급과 직조연령층의 심각한 고령화로 제사와 직조 그리고 색내기 공정간의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특정 공정만을 담당하는 「임가공」과 「소공장형」의 직조공장과 대마 증숙공장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총 조사대상 128가구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생산체계 실태를 살펴보면, 대마재배-제사전단계-제사단계-직조단계를 모두 담당하는 가구는 44가구로 34.3%를 차지하여 본 산지내 대부분 안동포 생산가구는 일부 공정을 담당하는 부업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마재배를 하는 가구는 52가구로 40.6%에 지나지 않아 과반수 이상이 수공업적인 생산공정만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대마재배와 직조공정만을 담당하는 각각 한 가구만을 제외하고는 단일공정이 아닌 복수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비일괄 생산자 중에서 단일공정이 아닌 복수의 공정담당자의 비율은 64.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농업적 성격과 수공업적 성격의 공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가구는 총 6가구로서 비일괄 복수

표 2. 안동포 생산공정별 조사대상 생산세대 구성

담 당 공 정		세 대 수
일괄생산(전공정)		44 (34.3)
일 부 공 정	대마재배+(일부)비직조공정	4 (3.1)
	대마재배+(일부)비직조공정+직조공정	2 (1.6)
	대마재배+직조공정	1 (0.8)
	(일부)비직조공정+직조공정	57 (44.5)
	비직조공정(제사전단계+제사단계)	18 (14.1)
	소계	82 (64.1)
단일 공정	대마재배	1 (0.8)
	직조	1 (0.8)
	소계	2 (1.6)

자료 : 현지조사

공정담당자(82가구)의 8.5%에 지나지 않아 생산 공정별 가구수에 있어서는 수공업적 성격의 복수 공정 담당자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한편 수공업적 성격의 공정만을 담당하는 가구 중에서도 최종 직조공정은 담당하지 않고 순수하게 중간단계만을 담당하는 임가공가구도 18가구로서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동포생산은 생산 공정상의 산지내 사회적 분업체계에 기초한 생산 체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편 생산공정상의 사회적 분업뿐만 아니라 자연적 조건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큰 대마재배도 특정지역에 특화됨으로서 지역간 분업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 유통체계상의 변화를 보면 과거 정기시장과 외지 중간상인에 의존하던 유통체계는 1960년대 이후 쇠퇴기를 거치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속칭 「안동배정골」로 유명한 국내 유일의 삼배 전문 정기시장도 1970년대에 부터는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안동포의 거래장소로서의 기능은 거의 상실하였다(김의정, 1980, 26). 반면에 이 배전골목에는 기존의 상설점포를 중심으로 「장의사」상호의 「안동포 도·소매상」이 입지하여 현재 안동포 유통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은 산지내 중간상인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으나 산지내 생산자와 소비지도·소매상을 결합하는 역할 외에 대도시(서울)에 직영판매장을 운영함으로써 판로개척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유통업체는 안동포의 매매기능 외에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한복과 색내기 공정의 「임가공」을 통해 완제품화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이른바 「산지내 사회적 분업」의 통괄자(organizer)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안동포에 대한 지명도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그의 1997년 4월에 개장한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내에 상설 안동포 직판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상의 제품 판매 관련 유통업체 외에 본 산지에 있어서는 농협도 대마 종자구입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임하단위농협은 외지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우수한 삼씨를 확보하여 조합원인 대마재배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3) 안동포 생산 및 유통업체의 경영특성

(1) 안동포생산 관련세대 경영특성

본 산지에 있어서 원료인 대마재배에서 직조공정까지의 개별 생산세대의 경영세대의 경영특성을, 원료, 노동력, 안동포 생산, 판매의 4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표. 3). 안동포 생산단위는 개별세대로¹¹⁾ 일부 노인 단독세대를 제외한 그의 대부분은 가족종사자에만 의존한 농가부업형태로 일괄생산 혹은 부분공정을 담당하고 있다. 안동포의 원료인 대마의 수급은 과거와는 달리 대마를 전혀 생산하지 않고 완전히 구입하는 경우가 57.9%를 차지하여 원료생산과 직조간에는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판매만을 목적으로 한 대마 재배 농가는 1세대에 지나지 않고 자가수급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 재배농가가 전체 응답자의 34.7%를 차지하고 있다. 대마 재배세대의 평균 재배면적은 1995년 현재 약 652평이며 600평 이상이 38%를 차지하여 이들 농가는 대마를 재배하지 않으면서 안동포를 생산하는 세대의 주 공급자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본 산지의 대마수급은 양질의 대마재배가 가능한 임하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서후면의 경우 5세대 모두 200평 미만으로 자가 소비분만을 재배하고 있는데 임하면의 경우는 200평 미만은 3가구에 지나지 않고 400평 이상의 30가구로서 전체 약 70% 정도를 차지하여 자가수급보다는 판매에 역점으로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매는 주로 증숙공정을 마친 상태로 이루어지며 베기전 혹은 벤 상태로 구입하는 경우는 대마 중간중개상 등의 대량 구입자가 구매하여 따로 짜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 마을에서 찌서 운반하는 경우가 중심이다. 그리고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와 기타 소규모로 구입하는 경우는 피껍질 벗기기와 피삼 말리기 단계가 끝난 상태로 구입되고 있다.

다음은 주된 종사자의 연령·종사년수를 보면 60세 이상과 30년 이상이 각각 64.1%와 8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된 생산자가 노년층의

표 3. 안동포 생산세대의 경영특성

원	수급상황	자가수급	3(2.5)
		완전판매	1(0.8)
료	대마재배면적	자가수급+판매	42(34.7)
		자가수급+구입	5(4.1)
		완전구입	70(57.9)
		200평 미만	8(16.0)
노	주종사자 연령	200~400평 미만	11(22.0)
		400~600평 미만	11(22.0)
		600평 이상	19(38.0)
		40세 미만	4(3.1)
동	종사년수	40~49세	10(7.8)
		50~59세	32(25.0)
		60세 이상	82(64.1)
		10년 미만	7(6.2)
		10~30년 미만	13(11.6)
		30~50년 미만	45(40.2)
력	종사개시연령	50년 이상	47(42.0)
		20세 미만	77(67.0)
		20~30세 미만	23(20.0)
		30~40세 미만	5(4.8)
산	기술이전수	40세 이상	10(8.7)
		친정 가족	73(61.3)
		시댁 가족	28(23.5)
매	가족종사자수	주위 사람	18(15.1)
		1명	86(69.4)
		2명	36(29.0)
생	제품종류	3명 이상	2(1.6)
		6세 이하	29(22.8)
		7~8세	85(67.5)
산	생산량	9세 이상	12(9.5)
		5필 이하	55(49.1)
		6~10필	39(34.8)
		11~20필	13(11.6)
판	판매방법	21필 이상	5(4.7)
		중간상인 중심	7(5.8)
		소비자 중심	1(0.8)
		도·소매상 중심	55(45.8)
		중간상인·소비자	24(20.0)
		소비자·도소매상	29(24.2)
기타	4(3.3)		

자료 : 면접조사 결과.

주 : 무응답자는 제외하였으며 ()안은 구성비(%)임.

여성노동력으로 이미 결혼전인 20세 이전(67.0%)에 배찌는 기술을 가족으로부터 전수받은 경우

(61.3%)가 지금까지도 중심이 되고 있어 향후 안동포 생산의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

생산면에 있어서는 직접 안동포를 생산하는 세대와 총생산량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대마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약 6,300필로, 그 판매액은 약 3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세대별 생산량을 보면 5필이하로 가계보조적인 수준인 가구가 절반가량인 49.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의 15% 정도는 11필 이상으로 연간 600만원 이상의 소득으로 농가부업으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5% 정도는 연간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차지하고 있다. 제품을 보면 중급정도인 7~8세가 주된 제품인 세대가 전체 세대의 65.7%를 차지하고 최고급품인 9세 이상은 5%미만에 지나지 않는다.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고급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역내에서 보면 고급품보다는 중저가제품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안동포 가격¹²⁾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삼베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에 특히 고급품의 경우 그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중저가품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판매방법은 산지내 배전골목 및 외지 도·소매상을 통한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다음은 도·소매상과 소비자를 통해 판매가 24%, 그리고 중간상인과 소비자를 통한 판매가 20%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단일경로보다는 복수의 판매경로를 이용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이 지역에는 확실한 판매경로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안동포 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산기술의 개선 뿐만 아니라 안정된 판로개척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산지내 제품판매 관련업체 경영특성

재래공업산지에 있어서의 산지 도·소매상은 그 형태나 기능이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생산지(자)와 소비지(자)를 결합시키는 유통상의 역할과 원료와 생산수단의 공급, 생산공정의 관리 등을 통한 산지내 사회적 분업의 통괄자 역할도 담당

안동 삼베 수공업산지의 생산유통체계와 지역분화

당하고 있다(李哲雨, 1990, 32).

본 산지에 있어서 안동포 판매업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산지 도·소매상과 산지중간상인을 들 수 있다. 본 산지에 있어서의 산지 도·소매상은 과거부터 배전골목에 입지하고 있었으나 그 기능에 있어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안동포 정기시장의 기능이 약화된 이후부터이다. 현재 배전골목내 7개 업체가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으며 1개업체를 제외하고는 「장의사」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면접조사가 가능한 6개업체의 경영실태를 제시한 것이 <표 4>이다. 창업년도를 보면 4개업체가 70년대 이후로 안동포 생산의 쇠퇴에 따라 안동포 전문정기시장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이들 상설점포를 중심으로 한 도·소매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력에 있어서는 여성중심의 경영자를 포함하여 1~2인의 가족노동력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경영자의 전직과 겸직을 보면 모두 안동포 생산과는 무관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재래공업산지내 도매상들이 생산자중에서 상업자본으로 전환하였거나 현재에도 제품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286)과는 대조를 보이고 있다. 판매량에 있어서는 20~200필 정도로 업체별로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나 취급품목에 있어서는 96년부터 중국산 삼베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되고는 있으나 대부분 중국산의 비중이 높은 반면 안동포의 경우는 고급품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즉 품질이 낮은 제품은 거의 중국삼베로 대체되고 있으나 고급품의 경우에는 장날 일반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기보다는 산지내 이들 도·소매상을 통해 구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안동포 생산은 제품의 질에 있어서의 차별성을 통한 비가격경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도·소매상의 매매기능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안동포를 이용한 한복 등을 주문받아 이를 산지내 「한복전문점」에 임가공형태로 가공하여 소비자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나 안동포 생산업자들이 꺼려하는 마무리 단계인 색내기공정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구입하여 이 공정 역시 전문업체에 임가공을 맡겨 완제품화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제품

표 4. 산지내 도·소매상의 경영특성

경영체 연번	창업 연도	경영자특성				종사 자수	임가공업 채수		'95년 판매량 (필)	중국산 비율 (%)	안동포 주구입 대상지역	주판 매 지역	가족중 타직업
		연령	성 별	종사 연수	전직		봉제	상패					
s1	1945 년경	40	여	2대째	무	1	2	1	50	60	임하	서울, 대구, 부산	자영업
s2	1975 년경	67	남	20년	농업	2	1	1	200	10미만	서후	전국 각지	무
s3	1980 년대초	48	여	17년	주부	1	3	1	20	75	임하	서울, 대구, 부산	공무원
s4	1970 년대초	69	여	25년	정미소 경영	2	2	2	200	60	임하	대구, 서울	무
s5	1960 년대중반	69	남	30년	문방구 경영	2	3	1	—	70	임하	—	—
s6	1970 년대초	51	여	2대째	무	1	4	2	—	—	—	전국 각지	교직

자료 : 면접조사 결과

생산공정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입대상은 일반적으로 배전골목을 찾아오는 생산자이나, 주된 구입대상지역으로는 안동지역내 양대 안동포 생산지역중의 하나인 임하면이 지적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대체로 임하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세가 곱고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 산지 중간상인은 1980년 이후에 등장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지 도·소매상과 함께 「산지내 사회적 분업의 통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적 업체이다. 산지 중간상인 중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한 업체¹³⁾를 중심으로 경영특성과 그 역할을 고찰하기로 한다.

이 업체는 서울에 직영판매장과 위탁판매장을 설립하고 서후면 저전리(한양 조씨 집성촌)를 중심으로 생산된 안동포를 중심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서울의 직영판매장과 위탁판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외에도 전국 섬유 도·소매상을 대상으로 판로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량직기를 보급하고 안동포의 수요동향을 파악하여 수요확대가 예상되는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거나 나아가서는 주문생산을 통한 간접적 계열화로 안동포 생산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지 도소매상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안동포를 이용한 한복과 색내기공정을 산지내에 「임가공」을 맡김으로서 간접적으로 생산공정에 관여하고 있다.

4. 산지내 사회적 분업과 지역분화

본 산지에 있어서의 삼베(안동포) 생산은 수공업적 숙련기술의 필요성 등 기술적으로 대량생산에는 한계성이 큰 업종의 성격과 낮은 기술수준으로 생산기거나 설비가 개발되지 않은 관계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뚜렷한 생산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영세생산자들이 집적하여 협동적인 연계관계를 맺은 산지형성을 통해 외부경제를 추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존립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같은 존립기반의 핵심적 요소가 바로 생산과정상의 혹은 생산과 유통간의 사회적 분업을 통한 업체간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이다.

재래공업산지 존립에 있어서의 사회적 분업의 의의로는 분업에 따른 생산공정의 세분화와 다양

한 업종분화는 첫째, 가족 노동력, 가계보조적인 노년층 노동력과 주부노동력 등 다양한 저임금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함과 동시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둘째, 소자본의 신규참여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셋째, 전통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생산과 마케팅 등 다방면에 걸친 노하우를 활용함으로써 업종과 제품의 전환을 통해서 제품의 다양화와 제품수명주기를 연장함으로써 산지의 성장·존속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박양춘·이철우·박순호, 1995, 290).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산지에 있어서의 종래의 안동포 생산은 농업과 수공업적 성격을 동시에 가질 뿐만 아니라 뚜렷이 구분되는 복수의 생산공정으로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생산과정상의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대의 안동포 생산에 있어서 대부분의 안동포 생산가구의 대마재배포기, 안동포 정기시장의 기능약화, 농촌유휴노동력의 감소 그리고 안동포 생산기술전수의 단절에 따른 생산연령층의 노령화등과 같은 종래의 생산기반이 해체된 상황에서 1980년대 삼베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생산유통체계가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산지내 사회적 분업의 발달과 이에 기초한 산지내 지역분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본장에서는 산지내 사회적 분업과 지역분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산지내 사회적 분업체계 특징

본 산지내 사회적 분업체계를 구성하는 산지 사업자(체) 집단은 ① 외지에서 대마종자인 삼씨의 계약재배를 통해 조달·공급하는 종묘상(농협) ② 대마재배업자 ③ 제사 및 직조중심의 안동포 생산업자 ④ 색내기, 봉제 등 단일 공정만을 담당하는 임가공업자 그리고 ⑤ 산지 도·소매상을 중심으로 한 제품판매 관련업체로 대별된다. 이들 사업자(체)간에는 대마재배와 안동포 직조간의 분업, 안동포 직조과정상의 분업 그리고 안동포 생산과 판매부문의 분업등 크게 3부분에 걸쳐 사회적 분

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산지내 사회적 분업체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안동포의 원료인 대마를 재배하지 않고 제사 및 직조공정만을 담당하는 생산자가 출현함으로써 농업적 성격이 강한 대마재배(중숙단계까지 담당)와 수공업적 성격이 강한 제사·직조공정간의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힘든 남성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마재배·수확 그리고 중숙단계가 분리됨으로써 과거에는 안동포 생산이 불가능한 여성노동력이 없는 여성 혹은 노인세대도 안동포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는 대마재배와 제사·직조공정을 모두 담당할 수 있는 노동력을 모두 갖춘 세대의 비중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제사·직조공정은 거의 전적으로 여성노동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대당 여성노동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들 세대당 안동포 생산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업의 결과 대마재배에 필요한 남성노동력을 가진 세대는 중간재로서의 판매 목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한편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종래 自家에서 채종하던 삼씨 대신 우량종자를 단위 농협을 통해 외지에서 계약재배·구입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가장 시간적·자연환경적 제약이 크고 힘이 많이 요구되는 반면 비교적 기계화가 용이한 짜는 공정(중숙)을 대마재배농가들이 영농조합법인체로 「대마중숙공장」¹⁴⁾을 건립하여 자동화·기계화함으로써 노동력 절감, 생산량 증대를 통한 원가절감 그리고 품질개선에도 크게 이바지 하게 되었다.

둘째, 수공업적 성격의 제사 및 직조 그리고 색내기공정상의 임가공 형태를 중심으로 한 수공업적 공정상에서도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같은 사회적 분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정별로 요구되는 숙련도 차이와 숙련 기능인의 고령화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들 공정중 삼짜기, 삼삼기, 그리고 배짜기공정이 가장 고도의 숙련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중에서 앞의 두 공정은 특별한 설비나 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힘이 들지 않아 노년층이 담당할 수 있는 반면 배짜기는 최근 개량베틀이 보급되어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숙련도의 비중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고령

층이 담당하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전 공정을 담당할 수 없는 고령화된 숙련여성 노동력이 삼짜기와 삼삼기공정만을 담당하는 사회적 분업을 통해 고령화된 유희숙련노동력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마지막 색내기공정은 새로운 인공 안료인 가성소오다를 이용함에 따라 안동시내 전문업체에 임가공을 맡김으로서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1970년대의 생산기반 해체에도 불구하고 80년대이후 안동포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바로 안동포 생산과정상의 사회적 분업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안동포 생산과 제품의 유통·판매간의 산지내 분업화는 산지내 유통·판매업체의 역할이 미미한 관계로 비체계적이고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산지내 대표적인 제품유통판매 업체인 산지도·소매상의 경우 전업 안동포 판매장이라기보다는 「장의업」을 겸하고 있으며, 새로운 판로개척이나 원자재 구입·판매 그리고 생산설비 및 이용의 先費를 통한 안동포 생산업체의 계열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산지내 사회적 분업체계상의 통괄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반면에 산지중간상인은 비교적 활발한 판로개척과 주문생산을 통한 간접적 계열화로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통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산지에 있어서의 사회적 분업은 산지의 성장·존속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의 기획·개발 및 판로개척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즉 사회적 분업체계의 통괄자의 기능을 담당할 업체가 정착·발달하지 못한 결정적인 약점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의 안동포 육성정책은 기술개발이상으로 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제3섹터방식으로 마케팅전문업체를 설립·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전문업체의 운영상의 손익 그 자체보다는 안동포 생산업자 전체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훨씬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속적 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2) 지역분화와 지역별 특성

많은 재래공업은 산지내에서 다시 몇 개의 지역으로 생산을 분화하여 분화된 전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역적 통일체를 구성하고 있다. 산지내 지역분화는 일반적으로 최초로 정착된 기술적 핵심지에서 점차 주변으로 전파·보급되어 가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와같이 분화된 각 지구는 산지 전체의 공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생산을 전개한다. 그 특성은 노동력·생산수단·생산품의 성격 그리고 분업과 협업관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辻本芳郎, 1978, 6~9).

안동포 산지는 그 역사가 길고 과거 문헌상의 기록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산지내 어느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언제 어떻게 주변지역으로 전파·보급되었는가를 명확히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안동시 전역에 걸쳐 대마가 재배

되었고 가족노동력을 이용한 농가부업형태로 단일제품인 안동포를 생산하는 「소상품형」의 생산유통 체계였다는 점에서 뚜렷한 산지내 지역분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더욱이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량에 있어서도 선발핵심지와 후발지역간의 지역적 차이보다는 개별 생산세대의 숙련도와 노동력에 따른 차이가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생산유통체계의 변화와 산지내 사회적 분업화 과정에서 지역분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역분화는 우선 안동포 생산이 특정지역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됨과 동시에 특정지역의 생산유통구조상의 차별성에 기초한 지역간 연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들 지구는 크게 원료생산과 안동포직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금소리와 고금리를 중심으로 한 임하지역, 안동포 직조공정에 특화된 저전리를 중심으로 한 서후지역, 그외 거의 명맥만을 유지하는 그외 지역으로 구분된다. 3지역간의 차별성은 원료

표 5. 지역별 안동포 생산가구의 경영특성

구 분		지 역	임하면	서후면	강남동
원	원료수급	자가수급	3(4.1)	—	—
		완전판매	1(1.4)	—	—
		자가수급+일부판매	42(57.5)	—	—
		자가수급+일부구매	—	5(13.2)	—
		완전구매	27(37.0)	33(86.8)	10(100)
료	가구당 재배면적	200평 미만	3(6.8)	5(100)	—
		200~400평	11(25.0)	—	—
		400~600평	11(25.0)	—	—
		600평 이상	19(43.2)	—	—
생	주생산제품	6세 이하	4(5.9)	19(54.3)	—
		7~8세	58(85.3)	16(45.7)	7(77.8)
		9세 이상	6(8.8)	—	2(22.2)
산	가구당 생산량	5필 이하	38(55.9)	11(31.4)	6(66.7)
		6~10필	23(33.8)	13(37.2)	3(33.3)
		11~20필	6(8.8)	7(20.0)	—
		21필 이상	1(1.5)	4(11.4)	—
노동력	가족종사자 수	1인	27(37.5)	32(76.2)	9(90)
		2인	45(62.5)	8(19.0)	1(10)
		3인 이상	—	2(4.8)	—

자료 : 면접조사 결과

안동 삼베 수공업산지의 생산유통체계와 지역분화

수급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즉 강남동지역에서는 대마재배농가가 전무하고 서후지역에서는 안동포 생산에 참여하는 모든 세대가 일부(13%) 혹은 전적(87%)으로 대마를 구입하지만 임하지역의 경우는 대마를 재배하지 않는 세대는 37%에 지나지 않으며 일부를 구입하는 세대는 전무하다. 반면에 자가수급 및 일부를 판매하는 세대의 비율이 가장 많아 58%를 차지하며 안동포를 직조하지 않으면서 대마를 재배하는 세대도 있다. 그리고 가구당 재배면적을 보면 서후지역의 경우 200평 이하인 반면에 600평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아 43%를 차지하여 지역별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노동력에 있어서도 가족종사자에 있어서도 남성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마를 재배하는 세대에는 2명 이상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결과 임하지역의 경우에는 2인 이상이 63%를 차지하는 반면 서후지역은 24%에 지나지 않는다. 주생산품에 있어서는 서후지역은 6세 이하의 중저가품의 생산세대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9세 이상의 최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세대는 전무한 반면, 임하면에서는 6세 이하는 6%에 지나지 않고 9세 이상의 최상품을 주로 생산하는 세대도 9%를 차지하고 있다. 또 가구당 생산량에 있어서는 임하지역과 강남동지역은 5필 이하가 각각 56%와 67%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가장 큰 반면, 서후지역은 6~10필을 생산하는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고 21필 이상을 생산하는 가구의 비율도 10% 이상이나 된다. 그리고 제품판매에 있어서는 임하지역과 강남동지역은 주로 산지도·소매상이나 직접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가 중심을 이루는 반면에 서후지역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산지 중간상인을 통한 판매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볼 때 임하지역은 대마재배에서 안동포직조까지 이루어지는 종래의 생산체계가 존속하면서도 1980년대 이후에는 본 산지내에서의 원료조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마중숙공장까지 갖춤으로서 원료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직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고급품 중심의 소량생산 세대의 비중이 높아 안동포 직조비중은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서후지역은 임하지역의 대마재배

농가로부터 원료를 구입하여 제사 및 직조공정만을 담당하는 특화지구로 발전함과 동시에 생산품에 있어서도 중저가 중심의 상대적 양산체제의 특성을 가진다. 이 지역은 종래부터 양질의 대마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최고급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전국적으로 중저가품의 수요층이 가장 넓고 또 전국도소매상을 대상으로 가장 활발하게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산지 중개상인이 이 지역 출신으로 생산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계열화하는 형태로 어느 정도 안정된 판로가 확보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생산량 증대는 분사·연사 공정의 노년층 임가공을 통해 유희노동력 이용의 극대화를 통해 해결해 왔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산지에 있어 지역분화는 안동포 생산이 전체적으로 농업적 성격과 수공업적 성격이 강한 공정으로 대별되고 중국산을 비롯한 타 삼베지역과의 비가격경쟁을 통한 제품차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짐에 따라 농업적 성격이 강한 대마재배는 자연조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의 특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주된 생산품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기술축적과 깊은 상관성을 가지나 유통체계 및 노동력 이용방식에 있어서의 차별성과도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래공업 산지의 존립기반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안동 삼베(安東布) 수공업산지의 존립기반 즉 생산유통체계의 변화 및 경영특성을 밝히고 나아가서 산지내 사회적 분업과 지역 분화의 실태와 그 특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농촌 수공업 중에서 가장 오랜 전통과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 온 삼베수공업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안동지역 삼베(安東布) 수공업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거의 해체된 타산지와는 달리, 동업자조합의 설립을 통해 품질개선과 판로개척으로 오히려 성장하였다. 그후 197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의 극심한 쇠퇴기를 거쳐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회복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의 지명도와 고도의 기술축적을 통한 품질의 우수성과 생산체계의 전환을 통해 국내 타산지제품 뿐만 아니라 중국산 수입삼배와 비가격경쟁상의 우위성을 확보하면서 최근에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유통체계에 있어서는 과거 개별농가에서 가족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일괄 생산형태의 「소상품형」 체계에서 1980년대 후반 이후 고급품을 중심으로 한 삼배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품질 및 생산공정 개선노력과 생산연령층의 노령화 그리고 기존제품 판매체계의 기능약화로 생산공정상의 사회적 분업을 중심으로 생산유통체계가 변화하였다.

즉 과거 일괄 생산체제에서 크게 농업적 성격이 강하고 힘든 육체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대마재배와 안동포 직조공정간, 나아가서는 개량배틀의 보급과 직조연령층의 고령화로 제사, 직조 그리고 색내기 공정간의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특정 공정만을 담당하는 「임가공」과 「소공장형」의 직조공장과 대마 증숙공장도 설립·운영 또는 설립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정기시장이나 외지중간상인에 주로 의존하였으나 현재에는 산지도·소매상과 산지중간상인이 제품판매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유통업체는 안동포의 매매기능 외에 소비자로부터 안동포를 이용한 한복 등을 주문받아 「임가공」을 맡겨 생산하고 있다. 또 이들 업체가 구입하는 안동포의 일부는 색내기 공정을 마치지 않는 상태로 구입하여 역시 「임가공」로 완제품화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 이른바 「산지내 사회적 분업」의 통괄자(organizer)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산지내 사회적 분업체계에 있어서는 대마 재배와 수공업적 성격이 강한 제사 및 직조 공정간 나아가서 수공업적 공정상의 부분적인 분업 그리고 안동포 생산과 제품 판매간의 크게 3부분에 걸쳐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안동포 생산과 제품의 유통·판매간의 분업화는 비체계적이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즉 본 산지에 있어서의 사회적 분업은 산지의 성장·존속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제품의 기획

·개발 및 판로개척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 즉 사회적 분업체계의 통괄자의 기능을 담당할 업체가 정착·발달하지 못한 결정적인 약점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본 산지에 있어서의 지역 분화의 특징으로는 과거 안동 전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던 안동포 생산이 특정 지역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지역간의 생산유통구상의 차별성에 기초하여 지역간 연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지역분화의 원인으로는 안동포 생산이 전체적으로 농업적 성격과 수공업적 성격이 강한 공정으로 대별되고 중국산을 비롯한 타 삼배지역과의 비가격경쟁을 통한 제품차별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짐에 따라 농업적 성격이 강한 대마재배는 자연조건이 양호한 지역으로의 특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서 주된 생산품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기술축적과 깊은 상관성을 가지나 유통체계 및 노동력 이용방식에 있어서의 차별성에도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천연섬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안동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안동포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범위내에서의 기계화를 통해 생산비의 절감 뿐만 아니라 제품의 질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농업의 다각화, 농촌 노동력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에 따른 잉여노동력의 감소와 숙련노동력의 노령화 문제 그리고 상품의 개성화·다양화·고급화라는 수요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타 산지제품에 대한 비가격경쟁에서의 우월성 확보가 전제가 된다. 따라서 단순한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절감과 제품의 품질 개선 뿐만 아니라 쪽빛, 치자염료 등 우수한 천연염료 개발과 전통고유문양·디자인 개발등 안동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소비자의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 즉 사회적 분업체계의 통괄자 기능을 담당할 업체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3섹터 방식의 마켓팅전문업체의 설립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마켓팅전문업체는 수익 그 자체보다는 안동포 생산업자 전체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훨씬

안동 삼배 수공업산지의 생산유통체계와 지역분화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한다.

註

- 1) 필자는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재래공업산지의 존립기반과 그 특성'이라는 주제하에 개별산지에 대한 사례조사를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강화도 화문석산지(1991), 담양 죽체품산지 그리고 여주 도자기산지(1995)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였다.
- 2)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평안도의 42군현 가운데 39개 군현, 함경도 22군현 전부, 황해도 24개 군현중 14개 군현에서 대마가 재배되었다.
- 3)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마포생산은 1911년 992400필, 1756600원에서 1918년 2449600필, 7395600원으로 증가하였다.
- 4) 1918년 「機業傳習所」설립된 곳은 공주, 부산, 마산, 진주, 의령, 동래, 합천, 평양, 진남포로 9개 지역이다(조승현, 167).
- 5) 대마관리법 제 5조, 7조 그리고 8조 규정에 의하면, 대마취급자는 신원증명서와 사진 2매를 첨부한 신청서를, 대마재배자는 재배면적, 종자, 파종기간과 종자사용량을 5월 31일까지, 그리고 재배기간, 채취 기일과 섬유생산량을 11월 30일까지 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1981~1982년에 조명석, 이천섭씨 등 7인이 마·면 혼방직조의 시도, 1982년~1985년에는 천수환과 이천섭씨가 반자동직기, 연사기와 분사기를 개량한 대량생산화, 1985~1988년에는 이종철과 이천섭씨는 대마의 원료화를 위한 약품처리 및 제사, 제직의 기계화 등을 시도하였으나 결국은 실패하였다. 단 강성구씨만이 1985년 이후 안동포 제사 및 제직 준비단계와 제직분야의 '기계화를 중심으로 안동포 개량화에 진력하면서 현재 안동시 송천동에서 「장수안동포」 직조공장을 경영하고 있다.
- 7) 현재 안동시 송천동에서 「장수안동포」 직조공장을 경영하는 강성구씨에 따르면 현재 수입되는 중국산 삼배는 힘이 없고 조직이 일정치 않고 성글어 형태변화가 심하며 쉽게 헤어지는 질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원료가 대마가 아닌 苧麻로 수의용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안동포를 사용해본 사람은 안동포 가격의 1/10정도로 가격이 낮으나 구매하지 않는다고 함.
- 8) 1970년까지는 최대 대마재배지역은 월곡면지역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20%정도를 차지하였으나 1974년

안동댐 건설로 수몰지역이 됨으로서 전체 대마재배 면적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 9) 대마의 품종은 기후, 토양 기타 조건등에 따라 특성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각 지방에 적용하는 품종을 선택하여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동지역의 경우에는 재래종인 강원도 정선종이 재배되고 있다.
- 10) 낱상이는 10타래의 실을 한번에 날도록 나무막대에 10개의 구멍을 만들어 각 한 올씩 끼우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 11) 본 산지에 있어서 생산부문에 있어서 개별세대 이외의 경영단위는 영농조합 형태로 건립운영됨(1997년 7월부터 정상 가동 예정) 「대마 증속공장」과 안동포 직조공장은 「장수 안동포」 밖에는 없음.
- 12) 1996년의 경우 주로 상복이나 수의 등으로 사용되는 6세 제품이 필당 50만원에서 고급훈수용 의류나 도포감으로 사용되는 최고급품의 경우 90만원정도로 일반 중산층에서도 가격부담이 크므로 최고급품은 실용품보다는 회귀 토산품화 되어 부유층의 선물용으로 주로 이용되므로 그 수요가 제한적임으로.
- 13) 이 업체의 경영자인 서후면 저전리 조명석(96년 현재 65세)는 서후면 저전리 마을금고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직기개량 및 면·마 혼방섬유개발, 안동포 생산의 부업·특산단지화를 통해 안동포 품질개선에 노력하였으며, 나아가서 안동포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질개선 뿐만 아니라 시장개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95년 사업자등록(14호)을 하고 본격적으로 산지내 안동포 전문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 14)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 7월 대마 주재배지인 임하면 금소리를 중심으로 92세대가 「임하영농조합법인(대표자: 임정진)」을 설립하고 건평 250평의 자동화된 대마증속 및 직조공장을 금소리 373번지 986평의 부지(마을공동임야를 매각하여 구입)에 건립하였다.

文 獻

- 김의정, 1980, **경북 안동 대마직포에 관한 연구 -안동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辻本芳郎, 1978, **日本の在來工業**, 大明堂.
- 上野和彦·西村龍平, 1990, **地場産業地域の形成に關する一考察**, **經濟地理學年報**, 36(2), 141~151.

- 李哲雨, 1990, 韓國江華地域莞草工藝品産地の生産流通構造, *經濟地理學年報*, 36(4), 21~44.
- 李哲雨, 1991, 農村地場産業に關する經濟地理學的研究, 名古屋大學校博士學位論文.
- 이철우·박양춘·박순호, 1995, 우리나라 재래공업 산지의 사회적 분업-담양죽제품과 여주 도자기 산지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30(3), 269~295.
- 조승현, 1992, 전남 삼베수공업의 존립형태와 지역구조 변천-전남 보성군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21, 157~185.
- 한국섬유기술진흥원, 1995, 전통고유기술(안동포 분야) 현황 분석.
- 合田昭二, 1971, "知多綿織物業の地域的存立基盤", *地理學評論*, 44(7), 498~514.
- 홍희유, 1979, 조선중세 수공업사연구,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Amin, A., 1994, The difficult transition from informal economy to Marshallian industrial districts, *Area*, 26, 13~24.
- Lorenz, E. H., 1992, Trust, community, and cooperation: toward a theory of industrial district, in Storper, M. and Scott, A.J.(eds.), *Pathways to Industrializ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Routledge, London.
- Perry, M. and Goldfinch, S., 1996, Business networks outside an industrial district, *TESG*, 87(3), 222~236.

The Production-And-Marketing System and the Regional Division in a Traditional Industrial District: Hemp Fabric Handicrafts in Andong

Chul-woo Lee*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reason of the change of production-and-marketing system and of the regional division.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by administering interviews with people engaging in hemp fabric industry: namely, craftsmen and managers in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of "hemp fabric" handicraft.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hemp fabric industry is a main subsidiary business of agriculture in Andong. The process of making hemp fabric heavily depends on manual labor. The process is divided into five stages: namely, cultivating hemp, pre-reeling, reeling, weaving, and colouring.

Second, Andong "hemp fabric" handicrafts industry had been continuously growth until the late 1960s. During the period of Japan colonization, it was under boom condition: while the other traditional fabric industries were declined. In the 1970s, the decrease of the demand of hemp fabric was the result of mass production of substitute goods on factory system: while, in the 1980s, the growth of per capital income play an important role

in bringing about the increased demand of hemp fabric.

Third, in the 1980s, production-and-marketing system was changed as the result of the effort to improve the quality and the process, the advanced age of craftsmen, and the weak function of existing marketing systems.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within the district is well developed between cultivating hemp, reeling and weaving.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is also found in the partly process of handicrafts, and between the production and marketing. The social division of labor between production and marketing is not strongly developed to establish a reliable enterprise that develops a new product and opens a new market.

Fourth, the spatial boundary of the production of hemp fabric handicrafts becomes limited into a special region based on the regional specialization of hemp cultivating and the differentiation of utilization of labor.

Key words : traditional industry, Andong hemp fabric(*Andongpo*), production-and-marketing system, social division of labor, regional division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